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등 통일법제 연구 유관기관 방문기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I. 연구의 배경

한국법제연구원은 기관의 국제적 위상제고 목적과 더불어 연구자의 해외 연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연구자들의 해외체류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통일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또한 외국에서 보는 북한법에 대한 관심 및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라는 정치·외교적 동향을 분석하지 아니한 상태로는 더 이상 선제적인 연구를 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히 법제도는 그동안 중국, 일본정도가 제법 정보를 취득하고 있을뿐이었는데 이것은 그 국가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북한사회와 법의 특수성 및 폐쇄성에 기인한 결과였다. 이제 우리 남한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즈음하여 북한의 법제를 연구하고 알려져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남·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국교를 수립하여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다. 물론 북·일간의 국교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후 냉랭해진 북·일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아베 총리의 국내정치 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던져주리라 생각되었다.

II.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방문

한반도와 나아가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는 평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 역시 평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4분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인류역사상 최초의 피폭을 경험하였다. 이 도시는 피폭을 교훈삼아 세계평화의 상징을 추구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에 히로시마시립대학은 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평화에 관한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5인의 국내외 연구진이 평화와 관련한 국제관계, 동남아 정치, 예방외교, 국제법, 평화사상, 핵문제, 북한인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 등을 상대로 하는 [연구포럼], [시민강좌] 등을 개설하여 학교를 벗어나 시민사회 전체에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학문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당시는 남북한이 급진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일본의 현안문제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학술회의를 한 것이었고, 이번은 평화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히로시마시립대학의 커리큘럼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대학 평화연구소의 교수들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고, 평화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평화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들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은 평화의 제도화를 통하여 완전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루어야 할 과제로서 핵무기 개발과 국제관계로서 세계의 핵과 비핵정책의 현황에 대한 검토(미국 및 러시아의 핵능력과 핵독트린, npt체제와 핵무기금지조약 등)가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중인 후쿠이 야스히토 교수(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인권기버너스 구축과 인류의 안전보장문제로서 국제기관, NGO 등의 관여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회의의 막바지에 필자는 히로시마 중앙공원을 주위로 원폭돔을 방문하였다. 히로시마는 피폭당시의 돔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70여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띄었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보여줌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주문하는 듯 보였다.



폭격당시를 그대로 간직한 히로시마 원폭돔

III. 환태평양경제연구소(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약칭ERINA)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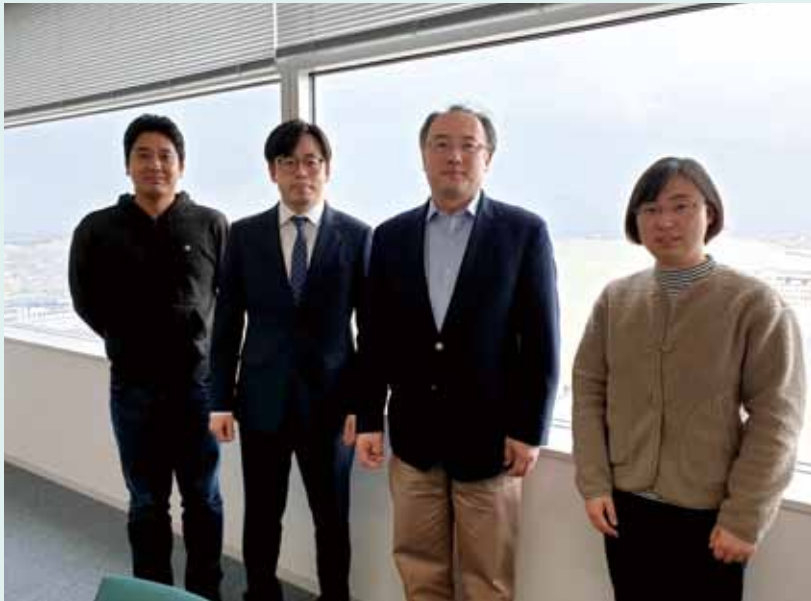
ERINA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일본의 싱크탱크이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일본내 최고의 북한전문가인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무라 박사는 우리 언론에도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수차례 인터뷰를 한 바 있는 법학박사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체제와 법제도에 대한 전문가이며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분석가이다.

나는 북·일 수교의 실현 가능성과 일본사회에서 수교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이 추진하는 수교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의 내용과 방향성의 일치, 두 번째는 2002년 북-일간에 체결한 평양선언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한과 체결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체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일본의 입장에 따르면)은 1965년 당시 한-일국교수립 당시 합의된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북-일수교 문제와 더불어 향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아베정권의 임기종료에 즈음하여 안보가치를 이용하기 보다는 정권의 연장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통한 일본의 평화애호주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어필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미-일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은 남·북·미 관계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북·일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은 자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외국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진출 및 투자자 자기 책임으로 이들에 대한 후방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입법은 취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였다. ERINA의 연구진을 통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통일법제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ERINA의 동북아문제 연구진들과 기념촬영



한국법제연구원-ERINA MOU 체결식 사진(2017. 5. 15)

IV. 주일한국대사관의 통일정책관 면담

필자는 체류연구기간의 막바지에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의 대사관은 특이하게도 통일정책관을 두어 외국에서 보는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관측하고 우리의 통일정책과 현안을 알려져서 한반도 문제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어져 있다고 한다.

통일정책관과 필자는 오랜시간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일본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필자의 관심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하여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북한과의 합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과 미수교국인 일본은 북한과의 합의를 신사협정으로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2002년에 체결한 평양선언의 경우 조약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북-일 수교의 경우 2002년에 합의한 평양선언의 내용을 수교의 전제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V. 마치며

필자는 이번에 일본 체류연구를 하면서 북-일관계와 제3국의 입장에서 즉 통일의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 북한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계기를 가졌다.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는 우리 연구원과 연구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미 MOU를 체결한 기관인 ERINA에서는 일본의 연구진이 북한에서 직접 입수하고 체득한 지식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북한과의 법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필자는 일본에서 4주간 9차례에 걸친 전문가자문회의와 기관방문, 개별 연구자 접촉을 통해 북한과 맺은 합의서의 법적 취급에 관한 사항, 북-일 수교시 발생할 국내법적 쟁점, 북핵문제, 납치문제,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상세한 자문과 연구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회의의 내용을 모두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작성하기로 한 연구원의 [이슈페이퍼]와 연구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체류연구가 일회য়ে 그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학술대회와 연구협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필자의 체류연구에 있어 도움을 준 일본의 코쿠분 노리코 교수나고야대학 법학과, 유훈택 교수소카대학 법학과, 초지 유리치로 교수쓰쿠바대학 법학과, 손현진 교수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미즈모토 카즈미 교수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오오우치 노리아키 교수칸토가쿠인대학 국제문화학부, 미무라 미치히로 박사ERINA, 마경조 통일정책관주일 한국대사관, 김선표 총영사히로시마 총영사관등 관여해 주신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